

# 초등학생의 성인 영상 이용률, 2018년 20%→2022년 40%로 급증!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초 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을 대상으로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2022년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2022년 조사에서는 온라인 도박성 게임, 개인정보 피 해 경험, 주요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경험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적이다.

2020년 조사 결과를 지난 넘버즈 93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해 행위 경험(성인 영상 이용률 2020 37%→ 2022 48% 등), 폭력 피해율(2020 6%→ 2022 16%) 등의 지표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결과는 초등학생의 성 인 영상 이용률이 2018년 20%, 2020년 34%에서 2022년 40%까지 급증한 점이다.

많은 교회가 길었던 코로나를 뒤로하고 엔데믹 시대를 맞아 다시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 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넘버즈 198호>는 ‘청소년 특집’으로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실태 부터 폭력, 약물, 유해환경 경험 등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유해한 요소를 두루 다루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벗어나 건강하게 여가, 취미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1

## [매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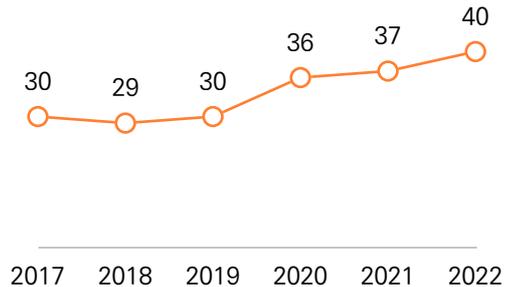
###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상태!

- ▶ 최근에 발표된 '2023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4.3시간으로 하루 평균 3시간 24분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10년 전 대비 주 평균 10시간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 ▶ 한편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0명 중 4명꼴이었는데,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시간)



[그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통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3.05.30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통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2023.05.30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가 있는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 비율의 합계 비율

## ◎ 초등학생 '가상세계' 이용률 71%로 중고생보다 월등히 높아!

- ▶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을 초·중·고등학생에게 물었다. 전체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97%,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95%, 'TV방송' 88% 순으로 높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 대비 '확장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이용률(71%)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청소년 매체별 이용률 (최근 1년 기준, 상위 4위, 중복응답)

| 이용률 순위 | 전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1위     |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br>97%    |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br>94%  | 인터넷/모바일 메신저<br>99%  | 인터넷/모바일 메신저<br>98%  |
| 2위     | 인터넷/모바일 메신저<br>95%     | TV 방송<br>90%         |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br>98% |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br>98% |
| 3위     | TV 방송<br>88%           | 인터넷/모바일 메신저<br>71%   | TV 방송<br>89%        | SNS<br>89%          |
| 4위     | 동영상 제공서비스 (OTT)<br>75% | 확장가상세계 (메타버스)<br>71% | SNS<br>81%          | TV 방송<br>84%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3.06.22.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총 17,140명, 면접조사, 2022.09.14.~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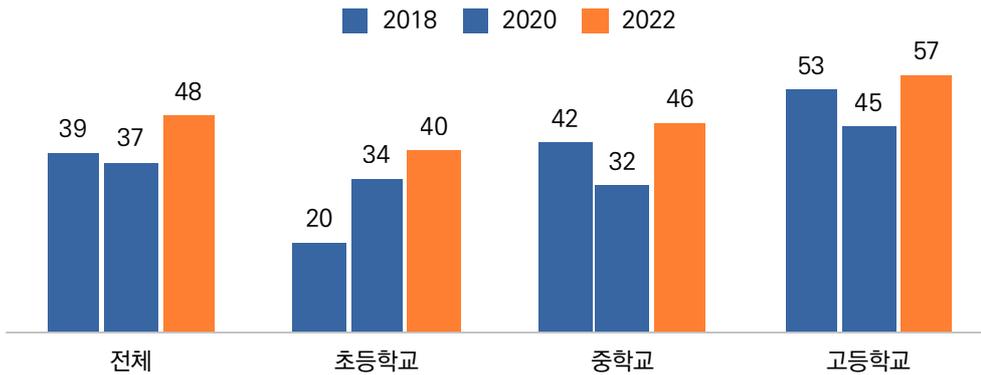
# 02

## [유해 행위 경험]

### 초등학생의 성인 영상 이용률 40%로 급격 증가 추세!

- ▶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48%)가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22년 40%로 2018년 20%에서 2배가량 급증하여, 매체 이용에 있어 부모들의 주의와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최근 1년간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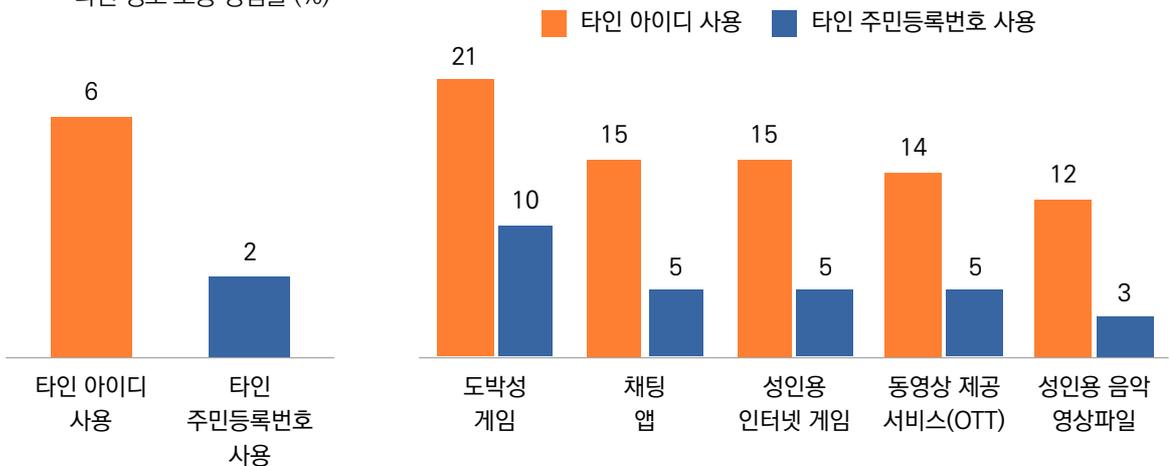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3.06.22.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총 17,140명, 면접조사, 2022.09.14.~11.14)

### ◎ 도박 게임 위해 타인 아이디 도용한 경험 21%

- ▶ 최근 1년간 인터넷 매체 이용 시 타인 정보를 도용한 경험을 묻은 결과, '타인의 아이디 사용'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모두 '도박성 게임'을 위해 도용했다는 비율이 각각 21%, 1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성인용 간행물'(10%)과 '성인용 영상물'(9%) 이용을 위한 타인 아이디 사용 경험률도 5명 중 1명꼴로 적지 않았다. 10대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타인 아이디 사용이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같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위해 타인 정보 도용 경험률 (%)

[그림] 타인 정보 도용 매체 (타인 정보 도용 경험자, 상위 5위, 중복응답,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3.06.22.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총 17,140명, 면접조사, 2022.09.14.~11.14)

# 03

## [유해약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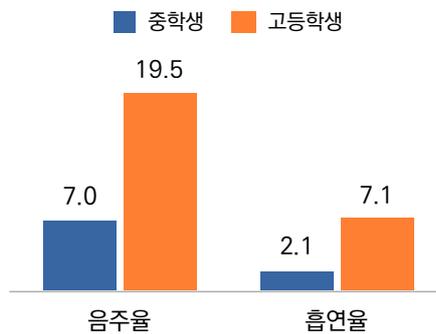
### 음주율 증가하는 가운데 고등학생 5명 중 1명 음주 경험!

- ▶ 중·고등학생의 최근 1개월 내 음주율을 확인한 결과, 2022년 13.0%로 전년(10.7%)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간 흡연율의 경우는 4.5%로 2020년,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 다만 중·고등학생을 비교했을 때 학교급별 차이를 보였는데 흡연율과 음주율 모두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 대비 3배 정도 높았고, 특히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19.5%에 달해 5명 중 1명은 1개월 내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내 경험률을 물었기 때문에 1년으로 더 기준을 넓힌다면 청소년의 음주율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중·고등학생 음주율 및 흡연율 추이\*\*  
(최근 1개월 내 경험률, %)



[그림] 학교급별 음주율 및 흡연율\*\*  
(2022년 기준, 최근 1개월 내 경험률,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통계 (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3.05.30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필러)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임

## ◎ 술·담배 구입하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의 성인 인증률 20%도 안 돼!

- ▶ 술을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구입한 장소를 물은 결과,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이 95%로 가장 높았고, 담배 역시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응답이 92%로 대다수였다.
- ▶ 술이나 담배 구입 시 나이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밟는 것이 청소년보호법 상 원칙이지만 실제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비율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술·담배 구입 실태 (최근 1개월간 구입 경험 중 고등학생)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3.06.22.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총 17,140명, 면접조사, 2022.09.14.~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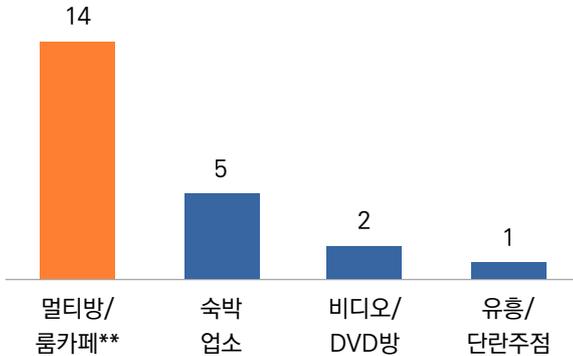
# 04

## [유해업소 경험]

### 청소년 7명 중 1명, 멀티방/룸카페 출입 경험 있어!

- ▶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 중에서는 '멀티방/룸카페'가 7명 중 1명꼴(14%)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숙박업소' 5%, '비디오/DVD방' 2% 등의 순이었다.

[그림]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이용률 (상위 4위,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3.06.22.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총 17,140명, 면접조사, 2022.09.14.~11.14)

\*\*멀티방은 2023.6 현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고시 및 시행(23.5.25)으로, 일정 기준의 시설형태를 갖춘 경우 청소년 출입 가능. 본 조사는 개정 고시 및 시행 이전 조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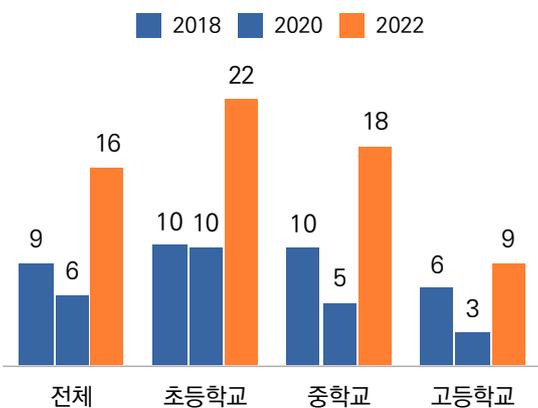
# 05

## [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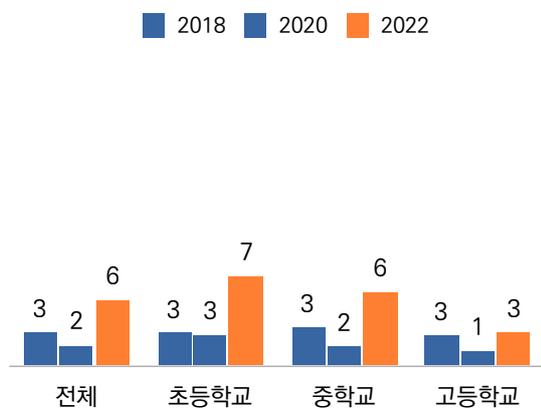
### 폭력 피해율 2020년 6%→2022년 16%로 3배 가까이 급증!

- ▶ 청소년의 최근 1년간 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였는데 2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2%, 중학교 18%, 고등학교 9%로 저연령층의 폭력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 성폭력 피해율(최근 1년간) 역시 2020년 2%에서 2022년 6%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그 증가율이 높았다.

[그림] 청소년 폭력 피해율 (최근 1년간, %)



[그림] 청소년 성폭력 피해율 (최근 1년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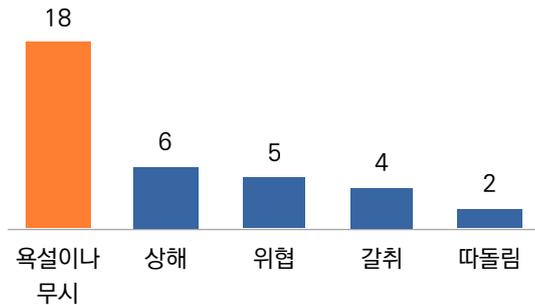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3.06.22.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총 17,140명, 면접조사, 2022.09.14.~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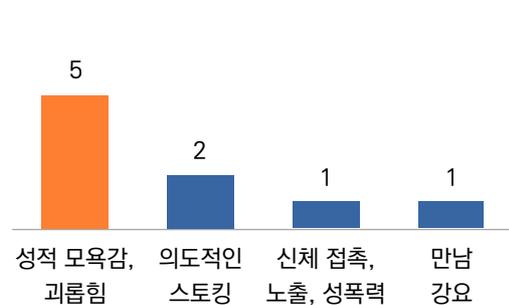
## ◎ 폭력 피해 유형, 1위는 언어폭력!

- ▶ 10대 청소년의 폭력 피해 유형(온+오프라인)으로는 언어폭력이 1위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음’이 18%로 가장 많았고,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6%,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 5% 등의 순이었다.
- ▶ 성폭력 피해 유형(온+오프라인)의 경우 ‘말, 눈짓, 몸짓으로 인한 성적 모욕감, 괴롭힘’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림] 청소년 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온+오프라인, 상위 5위, %)



[그림] 청소년 성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온+오프라인,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3.06.22.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총 17,140명, 면접조사, 2022.09.14.~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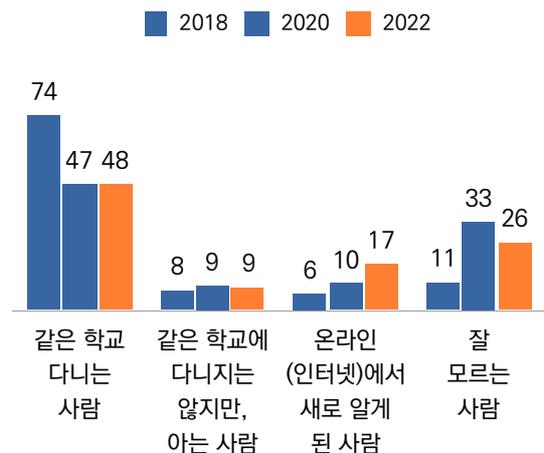
## ◎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 당하는 비율 증가하고 있어!

- ▶ 청소년 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나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성폭력 가해자 역시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가장 높았지만,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이 17%로 4년 전 조사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범죄 위험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 청소년 폭력 가해자 (폭력 피해 경험자, %)



[그림]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피해 경험자,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3.06.22.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총 17,140명, 면접조사, 2022.09.14.~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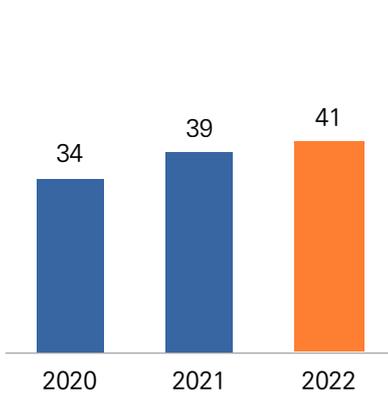
# 06

## [스트레스/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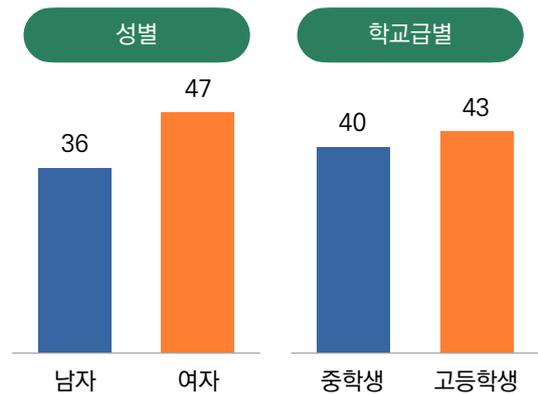
### 중고등 여학생 2명 중 1명, '평소 스트레스 많이 느낀다'!

- ▶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인 '스트레스 인지율'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로 2020년 대비 7%p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세부 특성별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편이었는데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7%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그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중·고등학생, %)



[그림] 응답자 특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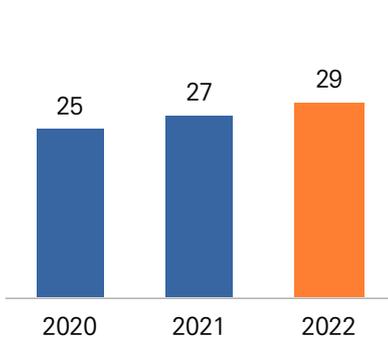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통계 (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3.05.30

\*\*5점 척도(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느낀다 / 별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 중 '대단히 많이 +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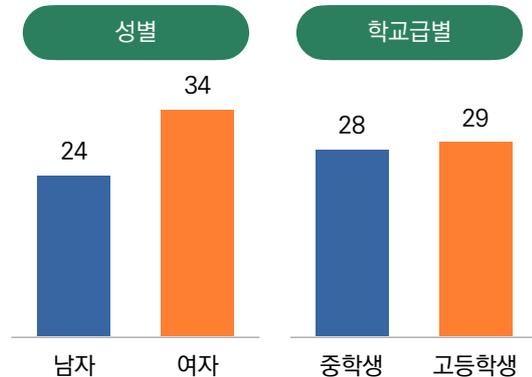
### ◎ 청소년 10명 중 3명, 우울감 경험 있어!

- ▶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역시 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마찬가지로 적은 비율이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22년 기준 청소년 10명 중 3명(29%)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우울감 경험률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0%p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그림]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중·고등학생,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



[그림] 성별/학교급별 우울감 경험률\*\* (2022,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통계 (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3.05.30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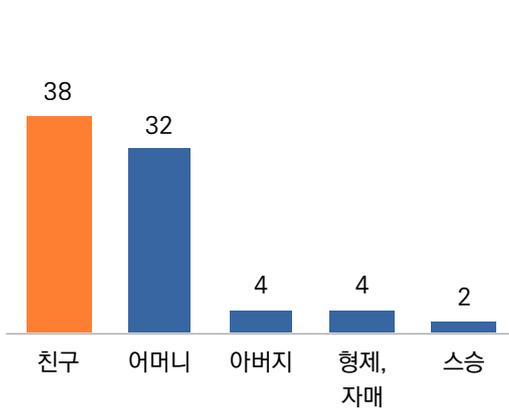
# 07

##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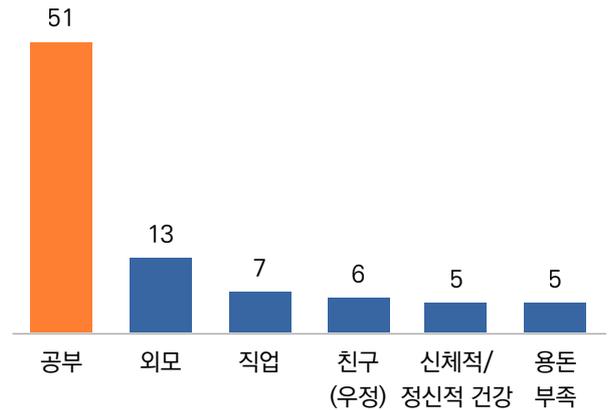
### 청소년의 고민 상담, 부모보다는 친구!

- ▶ 10대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친구’가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머니’ 32%, ‘아버지’ 4% 등의 순이었다. 어머니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아버지보다 8배나 높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대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로는 ‘공부’가 51%로 압도적이었고, 그 외에 ‘외모’ 13%, ‘직업’ 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13~18세, 상위 5위, %)



[그림] 청소년 고민 문제 (13~18세, 상위 6위,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2023.05.30

\*\*'스스로 해결' 응답은 순위에서 제외함

# 시사점

바야흐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시즌이다. 이맘 때면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등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최근 발표한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에 따르면 20대 개신교인이 최초로 신앙을 가진 시기는 모태신앙이 51.2%, 초등학교 때까지가 76.9%, 고등학교 때까지 아우르면 91.7%라고 하니, 청소년 시기의 신앙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부흥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들로 가득하다.

청소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요긴하지만, 유해한 환경을 쉽게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다. 청소년의 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시간 24분이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방식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 있는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비율은 40%에 달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처음 주어지는 초등학교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10명 중 7명(71%)이 '확장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현실 밖의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절반(48%) 정도가 이용 경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의 경험률은 40%로 2018년 조사 대비 무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해로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면, 중고등학생을 유혹하는 것은 유해약물과 유해업소이다. 중고등학생의 음주율과 흡연율은 각각 13.0%와 4.5%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무려 19.5%로 5명 중 1명이 음주 경험이 있는 셈이며, 조사 기준이 최근 1개월 내 경험이니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유해업소는 바로 멀티방과 룸카페이다. 청소년 7명 중 1명(14%) 멀티방/룸카페의 출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멀티방은 대형 TV를 장착하여 게임이나 동영상 감상 등을 즐기는 공간이고, 룸카페는 간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밀폐된 공간인 데다가 일부 업소의 경우 샤워 시설까지 갖춰서 유사 모텔로 이용하는 등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다.

청소년의 최근 1년간 폭력 피해율은 2020년 6%에서 2022년 16%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폭력의 유형은 '욕설이나 무시'가 가장 많았고(18%) 그다음으로 '상해', '위협', '갈취' 순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폭력의 가해자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인 경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2018년 87%, 2022년 62%), 온라인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2018년 1%, 2022년 10%).

한편 청소년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이 부모(32%)보다 친구(38%)가 더 많다는 결과에서 부모가 보다 더 청소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호기심이 많고 자제력이 부족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 단속하기는 하지만 유해 환경 접근을 차단하거나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청소년이 유혹을 이길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책임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9~10)

교회 교육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과 자제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